

가장 일 잘하는 충남도…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

작년 이어 2년 연속 1위 수성(守城)
전국 11개 시·도, 155개 지표로 평가

대기질·기후변화·성인지 등 ‘우수’
정량 지표 부문 각종 달성을 높아

양 지사, “도·시·군 연계 강화로
내년도 최고 수준 유지” 약속

충남도가 다시 한 번 전국 최고 성적을 거두며 2년 연속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우뚝 섰다.

도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 성적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우수사례를 배출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정부합동평가는 24개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 93명이 공동 참여해 전년도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수행 능력과 행정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시·도를 구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대상 5대 국정목표, 17대 국정전략, 43대 국정과제, 155개 세부지표에 대해 정량지표·정성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했다. 평가 결과 도는 전문가가 선정하는 정성지표(우수사례) 15건과 국민평가단이 5건을 선정하는 국민공감 우수사례에 2건이 선정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사례를 배출했으며, 목표달성을 평가하는 정량지표에서도 높은 성적을 거뒀다.

도는 정성지표 부분에서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 ▲지자체 성인지 정책 ▲지방예산낭비 신고 활성화 ▲수출 성과 ▲아동·청소년

년 폭력예방지원 노력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청년농업인 창업 및 정착 지원 정책 ▲통합방비태세 확립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침입범죄를 예방하는 셀테드 사업 ‘범죄의 골든타임 3분을 지켜라, 타겟 하드닝’ 사례와 인명구조·화재진압 등 사고 초기대응을 위해 출동 거점을 재배치한 ‘통계로 최적의 출동 거점을 찾다’ 통계 활용 사례는 국민 공감 우수사례로 선정 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와 함께 통계로 달성을 평가하는 정량지표 부분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 성과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 지원 ▲공공부분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자활 참여 성공률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중심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어린이 급식소 등록 관리율 ▲농산물 직거래 실적 증가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자연휴양림 시설 활용률 ▲온실가스 감축 노력 ▲임도시설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율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을 등도 전국 1위의 성과를 뒷받침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년 연속 전국 1위의 성적을 통해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며 “도와 15개 시·군이 함께 협력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군과 연계해 도민을 위한 도정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기획관 041-635-3132



“충남에 청소년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청소년 꽃이 피었습니다’를 열어 청소년 사회참여 기회 제공하고 청소년 공감 정책 실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사진 가운데)는 “청소년들이 제안해 준 의견들이 구체적 정책으로 결실 맷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맹철영 frened2@korea.kr

내포 1호 기업…환황해 중심 ‘도약’ 앞둬

한양로보틱스 7월 ‘새 터’

내포산단 1단계 분양면적 54%

“조기 분양·착공에 행정력 집중”

내포신도시 ‘1호 기업’이 마침내 가동을 시작했다. 2~4호 기업도 잇따라 첫 삽을 뜰 계획으로, ‘환황해 중심도시’ 도약이라는 내포신도시의 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한양로보틱스(대표이사 강대중)’가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에 최근 새 터를 꾸리고, 이달 초부터 생산설비를 본격 가동 중이다. 산업용 로봇인 자동취출

로봇과 공장자동화시설을 전문 생산·설계·설치하는 한양로보틱스는 대규모 설비 투자 필요성에 따라 2014년 도와의 협약을 통해 인천에서 내포신도시 행을 택했다.

이 기업은 내포신도시 첨단산단 1만 6529㎡의 부지에 90억 원을 투자, 지난해 11월 첫 삽을 뜯은 뒤 7개월 만인 지난 5월 말 최첨단 로봇 제조공장 및 설비 구축을 완료했다. 임직원 수는 총 70명으로, 내포신도시 본사 및 공장에는 현재 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30명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내포 근무를 시작한다.

연매출 200억 원을 달성한 바 있는

한양로보틱스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 자동차 등 500여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에서 생산량을 늘려 국내·외 시장을 확장해 나아갈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2~4호 기업으로 이름을 옮리게 될 월산이엔씨와 동양테크원, 지노아이앤티 등 3개 기업은 내달 착공한다. 1단계 분양을 마친 9개 기업이 매입했거나 매입할 내포신도시 첨단산단 부지는 총 7만 5083㎡로, 대상 면적(13만 8503㎡)의 54%에 달한다. 2단계 분양 대상은 21만 5000㎡로, 지난달 말 분양공고를 냈다.

●투자입지과 041-635-3394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

도·시·군 집행률 71.07% 달성
행안부 표창·재정 인센티브
일자리 창출·SOC 사업 ‘박차’

충남도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를 달성했다.

도는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는 표창과 함께 7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번 평가 결과, 도는 신속집행 대상액 4조 7975억 원 중 3조 4097억 원을 집행해, 행안부 광역도 목표율 63.50%를 상회하는 71.07%의 집행률

을 달성했다.

특히 도 본청과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신속집행 결과를 종합한 집행률은 65.33%로 전국 도부 중 1위를 기록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천안·아산·공주시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6월 30일까지 지방재정분석시스템에 집계된 실적에 대해 ▲신속집행 실적 ▲일자리 예산 집행 실적 ▲국고보조 사업(SOC)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이 연초부터 집행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온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신속한 재정 운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활발히 펼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담당관 041-635-3176

수출규제 악전고투 속 충남은 희망을 쏘다

도정 둘아보기

반도체·디스플레이 국산화로

의존도 낮춰 ‘위기극복’ 총력

기업, 본사유치 실적 역대 최고

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했고, 올해 16개사를 선정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스타기업은 연간 평균 매출액 400억 원 미만,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지만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다.

성장판이 열려 있는 이들 기업의 기술력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 육성이다. 도는 2022년까지 75개사를 스타기업으로 육성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도 마련된다. 충남 수출의 60%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다. 양 지사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을 국산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는 2025년까지 일본 경제 보복과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디스플레이 공정 혁신센터 건설, 산업

의 뿌리인 금속소재산업 육성(2022년까지 190억 투자)에도 박차를 가지고 있다. 천안아산역 KTX역세권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제조업의 역량을 결집할 R&D집적지구를 조성한다. 그런가 하면 기업의 본사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민선7기 출범 전 1년과 비교했을 때 기업 본사를 충남에 유치한 기업 수는 6배에 달한다는 흥미로운 수치가 나왔다. 재주는 곰(충남)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수도권)이 버는 역외유출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기업유치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1년간 유치한 기업은 91개, 금액은 1조 9531억 원에 이른다. 직전의 1년과 비교해 유치 기업 수는 2배, 금액은 3배에 이른다. 이것이 충남형 경제다.

/이찬선 chansun21@korea.kr

취임 1년 본사 25개 유치…6배

본사 이전 시 설비투자 10%
 세대당 이주비 1천만원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책 효과 ‘톡톡’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충남도의 인센티브 강화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민선7기 출범 전 1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 1년 동안 유치 기업 수는 2배, 금액은 3배, 본사 유치는 6배 이상 급증했다.

도에 따르면 민선7기 출범 이후 1년간 도가 유치한 기업은 91개, 금액은 1조 95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1년간 유치한 42개 기업 5611억 원보다 49개 기업 1조 3920억 원 많은 규모다.

연도별 유치 기업 및 투자 금액은 2014년 32개사 7256억 원, 2015년 31개

사 1조 4억 원, 2016년 13개사 1783억 원, 2017년 41개사 7489억 원 등이다. 민선7기 6개월이 포함된 지난해에는 61개사 1조 353억 원을 유치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44개사 1조 848억 원 유치를 기록 중이다.

특히 민선7기 1년 간 유치한 91개 기업 중 본사까지 이전키로 한 기업은 총 25개(투자 금액 3614억 원)로, 1년 전 4개(“ 1267억 원)보다 6배 이상 많다. 지역별로는 예산이 9개로 가장 많고, 서천 5개, 당진 4개, 흥성 3개, 예산·금산·청양·태안 각 1개 등이다.

연도별 본사 유치는 2014년 10개사, 2015년 11개사, 2016년 1개사, 2017년 6개사, 지난해 16개사, 올해 11개사 등이다.

이처럼 본사를 비롯한 유치 기업체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도내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도

는 기업 유치 활성화와 전국 최고 수준인 소득 역외유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시행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도와 소재 기업이 본사 및 공장을 도내로 이전할 경우 설비 투자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본사 이전 기업 이주 지원을 대상으로는 개인당 150만 원, 세대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내포신도시 1호 기업인 한양로보틱스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내·외 경기 위축 등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확대가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입지과 041-635-3304

도정만평

설인호



일 규제…지방정부 차원 돌파구 모색

양 지사, 현장서 관계자 의견 청취
 “국산화 위한 지원 마련” 약속

충남도가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도내 업체 피해 현황을 점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 실·국장 등은 30일 공주시 솔브레

인에서 ‘경제 상황판단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 지난달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발표(3개 품목)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우려에 따른 업계 영향과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충남경제 수출의 60%에 달할 정도로 충남 대표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현장을 찾은 솔브레인 역시 일본 불화수소를 수입·정제해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순도 불산을 가공해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대표들은 미·중 무역 갈등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업계 피해 등 우려를 전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신규공장 및 설비 증설 등에 대한 인허가 일정을 단축해 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

●경제정책과 041-635-3318

하계휴가철 공직감찰 활동 강화한다

공직기강·비리 집중 점검

충남도가 하계휴가철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하계휴가철 공직 감찰’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5개반 25명으로 구성,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15개 시·군이 대상이다.

도 감사위는 복무관리 주무부서인 운영지원과와 도 본청 감찰을 합동으로 실시,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실제 최근 공직자 부적절한 사례로 대두되고 있는 근무시간 미 준수 및 무단이탈, 허위

시간외근무와 출장 등 복무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구체적인 감찰 범위는 ▲공직비리 ▲공직기강 ▲복무실태 ▲비상대비 ▲안전대책 등 5개 분야이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할 예정이다”라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상을 적립하겠다”고 말했다.

●조사과 041-635-5446

충남신보·충남연 경평 ‘최고’

경영실적은 충남신보·충남연
 기관장 성과는 충남연·충남TP
 도내 15개 기관 경평 결과 발표

충남도가 지난달 22일 도내 15개 공공기관 대상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평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평가는 각 기관의 경영 혁신과 합리적인 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기관 경영실적, 기관장 성과평가로 나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충남도 공공기관 정부 평가 대상은 충남개발공사와 4개 의료원을 제외한 총 15곳이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 기관 평가 대상인 충남테크노파크는 기관장 성과평가만 실시했으며, 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기관 경영실적만을 평가했다. 또 경영 효율화 점검 대상기관으로 평가 후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인 공직

유관단체 충남교통연수원,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등 3개 기관도 동일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경영 실적 평가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연구원이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으며,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인재육성재단이 ‘나’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성과평가에서는 충남연구원·충남테크노파크가 ‘가’ 등급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충남신용보증재단·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인재육성재단이 ‘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장 성과 평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했으며 기관장 청렴도 수준도 지난해에 이어 우수한 수준을 유지했다.

도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각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해 각 공공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예산담당관 041-635-3150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마음”

도서(島嶼)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

④뱃고사

오폭기 꽂아 안전·만선 기원
 배 위에 제물 차려 비손

지난 봄 죽마고우들과 중국 여순으로 여행을 갔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마다 바퀴 훨에서 빨간색 형겼이 나풀거렸다. 너무나 이색적인 광경이었다. 궁금해서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무사고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한다.

우리도 간혹 새 차를 구입하면 차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본다. 차 앞에 상을 펴고 통명태, 밤, 대추, 명주실, 막걸리 등을 차린다. 차주는 자동차에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사고가 없기를 간절히 빈다.

그리고 자동차 네 바퀴를 돌아가며 막걸리를 조금씩 붓는다. 어떤 이는 통명태를 핸들 아래에 명주실로 묶기도 하고, 트렁크의 안쪽에 넣어두기도 한다. 이 모두가 안전한 운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사람들도 배를 새로 건조했을 때나 고기를 잡으려 나갈 때, 또는 당집에서 제를 지낼 때 뱃고사를 지낸다.

배가 있는 집에서는 며칠 전부터 대문 위에 금줄을 치고 그 아래에 세 무더기의 황토를 깔아놓는다. 정성을 들이니 혹시라도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함이다.

제일(祭日)이 되면 배를 깨끗하

게 치우고 배의 앞, 뒤, 가운데에 안전과 만선을 의미하는 오폭기를 꽂는다. 평상시에도 어업을 하고 마을로 돌아올 때 배 앞에 기를 하나 꽂아 무사고임을 표시했다. 만선일 경우에는 배 가운데에 반드시 기 하나를 꽂고, 나머지는 기를 있는 대로 많이 꽂는다. 그리고 풍장을 치면서 돌아왔다.

선주는 깨끗하게 목욕재계를 하고, 술·떡, 삼색실과 포, 데지머리 등 집안 형편에 따라 정성껏 제물을 마련한다. 배 위에 제물을 진설하고 선주, 선장, 선원이 모여서 절을 하고 비손을 한다. 고사율을 지내고 나면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는다.

뱃고사는 풍어를 기원하고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고자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의식이었다.

/민정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기획부장



출항을 준비 중인 어선이 뱃고사를 지내는 모습

더 건강한 '착즙주스'…10년 간 소비자 사랑받는 비결

이제는 농촌융복합산업이다

- (주)예당식품

국내 첫 착즙주스…시장 선점
예산 100여개 사과농가와 계약
깐깐한 품질 관리·균일한 맛

'과일주스도 다 같은 과일주스가 아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과즙의 함유량에 따라 크게 과채주스, 과채음료, 훈합음료 등으로 구분되는데 보통 과일 농축액을 허석해 설탕과 같은 당류로 단맛을 더 한 게 보통이다. 과일 주스에는 원재료가 된 과일의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실제 과일을 대신할 만큼 건강에 좋다고 볼 수 없다.

과일의 영양소와 맛을 고스란히 유지한 착즙주스는 그래서 시장에 나왔다.

사과·배 착즙주스로 국내 생산량 1위를 점유하고 있는 (주)예당식품(대표 김동복)은 우리나라에서 착즙주스를 처음 선보인 곳이다. 예산사과와 배로 만든 착즙주스만 10년째 생산하며 올바른 먹거리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예산 사과와 배로 만든 (주)예당식품의 착즙주스

(주)예당식품은 전국 대표 사과 산지인 예산 응봉면에 2009년 문을 열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수백여 개의 업체가 착즙주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당시엔 (주)예당식품이 국내 최초였다. (주)예당식품 김지산 과장은 "건강원을 운영하던 김동복 대표가 식품공학을 배우게 된 것이 창업의 계기가 됐다"며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에 식음료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창업 직후부터 현재까지 (주)예당식

품은 사과와 배, 2가지 종류의 착즙주스를 고집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특이 뜨거운 사과주스의 경우 예산에서 계약 재배한 지역 사과만을 사용하는데 거래농가만 100여 곳에 이른다. 다양한 사과 품종에서도 11월 이후 수확한 '부사'를 사용하는데 당도가 어떤 품종보다 높기 때문이다.

사과에 대한 품질관리도 엄격하다. 흔히들 착즙하는 사과의 경우 점박이나 낙과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원료로 쓰인다고 알려져 있지

만 (주)예당식품은 예외다.

김지산 과장은 "상처가 있는 사과는 물론이고 점박이도 아예 받지 않는 이유는 결국 주스의 미세한 맛 차이 때문"이라며 "엄격한 품질관리는 우리 회사가 10년 동안 소비자들의 인식도 많이 바꿨다"며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건강한 먹거리가 통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고 강조했다.

착즙된 사과주스는 순간 저온순간 살균돼 오랫동안 맛과 영향을 유지한다. 별도의 캡이 있는 포장재는 일반 파우치보다 두껍고 충격이나 파손에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존재 첨가 없이도 1년의 유통기간을 보장한다.

(주)예당식품의 착즙주스는 별도의 상업광고 없이도 소비자의 입소문에 힘입어 매년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창업 10년 만인 지난해 연매출이 29억3500만원.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해 백화점, 마트, 오프라인 카페 등 다양한 판로를 확보해 둔 덕분이다.

어려웠던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착즙주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도로 창업 초기에는 고전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신념이 소비자들

의 마음을 움직였다.

김지산 과장은 "처음에는 생산량도 적었고 기존 주스 제품들보다 가격도 높아서 시장에 접근하기가 무척 어려웠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며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건강한 먹거리가 통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고 강조했다.

(주)예당식품은 최근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개설, 새로운 종류의 착즙주스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신규 설비 확충을 통해 당근, 비트 등 구근류부터 아로니아, 블루베리 등 베리류까지 다양한 착즙주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수출 판로 역시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지산 과장은 "우리만의 착즙주스 레시피로 품목을 다양화하고 착즙주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주)예당식품의 해외 수출 판로 확대를 계기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동 khd1226@korea.kr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운다

제2기 스타기업 16개사 지정

기술혁신·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특히 최근 5년간 평균매출액 증가율 5%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10% 이상, 상시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 70%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및 연구인력 6인 이상 등 지표 4개 중 2개를 충족해야 한다.

스타기업 지정 혜택은 기업이 제시한 성장계획에 대한 전담 산학연 전문가(PM)가 배정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성장 컨설팅과 기술혁신활동 및 수출 마케팅 등 맞춤식 기업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수출 바우처(연간 2000만 원 내외) 등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상용화 연구·개발(R&D) 과제 지원, 컨퍼런스, CEO포럼 등 상생협력 네트워크도 지원된다.

김 부지사는 "앞으로 충남스타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타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원방

제2기 스타기업 지정 목록

기업명	소재지	주 생산제품
1 (주)금성풍력	아산	산업용 태양광풍기 등
2 (주)다인	천안	자동차 엔진룸차체 등
3 (주)대한금속	아산	열교환기, 동배관품 등
4 (주)미노	천안	스토리스 어린이보호자
5 (주)상신종합식품	천안	냉동 둔가스
6 (주)신영유니크	아산	수소·전기자동차부품 등
7 (주)영민하이테크	아산	자동차부품
8 (주)유닉테크노스	천안	OHCV 반도체 물류장비
9 (주)유한정밀	아산	수소차용 금속분리판 등
10 (주)에이지광학	천안	차량용 광학 부품
11 (주)엘케이켐	천안	광학용 실리콘첨가제
12 (주)켐코	천안	기능성 점착테이프
13 (주)태영금속	아산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외
14 (주)트임	천안	LCD/OLED Bonding 등
15 (주)파인에코	천안	플라스틱·웨어·씰 등
16 (주)퓨어스피어	논산	축매, 탄소, 설비

안을 적극 강구하고 성과확산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집중·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산업육성과 041-635-3926

역외유출 막고 경제 선순환 이끌 '지역화폐'

도입 3개월 만 200억 발행

연내 300억 돌파 기대감 상승

충남도가 올해 본격 도입한 지역화폐가 날개를 달고 있다. 제도적 기반 마련 3개월이 채 안 돼 발행액이 200억 원에 달하고, 연내 발행액 300억 원 돌파도 기대된다.

충남도의 6월 말 기준 도내 지역화폐 발행액은 10억 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

표액 124억 원보다 72억 1000만 원(58.1%) 많은 규모다.

시·군별로는 서산시가 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공주시와 논산시가 각각 30억 원, 계룡시 20억 원, 서천군 17억 5000만 원, 당진시와 태안군이 각각 1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주시는 특히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모바일 지역화폐(공주페이)를 도입·운용한다.

도내 지역화폐 판매액은 50억 4600만 원이며, 환전액은 50억 500만 원이

다. 도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10% 특별 할인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24억 원으로 잡았으나, 시·군의 관심도가 높아 당초 목표액을 훨씬 초과했다"고 말했다.

충남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콜린 현상 예방을 위해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원 모형'을 채택했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44

충청남도 6월 일자리 상황판

청년고용률



청년실업률



전국 충남 (단위 : %)

2분기 사회보험료 1만 4500명 신청

천안·아산 3분기부터 '동참키로'

충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도내 영세 업체 인건비 경감과 고용 위축에 등불이 되고 있다. 사업 시행 6개월(2분기) 만에 총 4837개 사업장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고, 1만 4514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있는 덕분이다.

충남도는 6월 8일부터 지난달 26일 까지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접수를 받은 결과, 886개 사업장이 신규로 신청, 1분기 대비 22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3148명으로, 1분기 대비 27.7% 증가했다.

사업 시작 첫 해인 올해 1분기 신청 사업장은 3951곳, 신청 근로자 수는 1만 1366명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논산시가 4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은 청양군이 72%로 가장 높았다. 천안과 아산 지역 사업주는 3분기부터 사업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1~2분기에 대해 소급 지원하지는 않는다.

도는 3대 보험공단과의 심사와 자체 심사를 거쳐 8월 중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기업과 041-635-2224



전쟁 아픔 딛고 평화 수호자로…강한 안

‘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17일간 개최될 ‘2020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가 4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 그중에서도 3군본부가 위치한 국방의 수도 계룡에서 펼쳐질 이번 행사는 세계 軍 문화의 평화수호자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6·25전쟁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2020년, 충남의 가을을 화려하게 수놓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프로그램과 전시관의 모습을 미리 살펴본다.

2020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D-410

道, 엑스포 지원체제 본격 가동
내년 9월 18일~10월 4일, 17일간
155억 투입, 세계 軍문화 ‘한자리’

계룡군문화축제는 지난 2007년 시작된 아래 일반인이 경험하기 힘든 군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내년에 개최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이하, 엑스포)는 문화·산업·국방이 만나 대한민국과 세계의 군, 관람객은 물론 지역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돼야 한다.

이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4차 확대간부회의를 통

해 엑스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내년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 펼쳐질 엑스포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에서 갈등과 대립을 넘는 세계 평화와 화합의 장 실현 ▲대한민국 군문화상 정립 및 군문화에 대한 긍정적 가치 공유·확산 등을 위해 ‘케이 밀리터리(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마련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위원장 김진호, 이하 조직위)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9개국의 군악대를 초청·섭외하는 한편, 엑스포 프로그램(안)과 전시관 구성·운영(안) 등 세부실행계획 등을 척척 수립해 왔다.

남은 기간 동안 도는 ▲‘도 엑스포 지원단’ 실무협의회 운영 ▲학생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전국 학교 홍보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강화 ▲행사장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 ▲숙박·음식 위생관리 종합대책 ▲대기업 등 후원·협찬사 섭외 협조를 비롯해 국내외 홍보와 관람객 유치 및 편의시설 정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해 행사장 내외부의 음식점 위생과 수용인원을 점검하고 숙박시설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양 지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강력한 힘의 상징인 동시에 평화와 화합을 견인하는 존재여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군문화엑스포는 우리 군의 모습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줄 아주 특별한 국제 행사로 준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손유진 syj0319@korea.kr



심볼마크

맞잡은 두 손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되어 비상하는 모습이 군과 민이, 대한민국과 세계가 만나 화합하고 어우러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붉은색은 대한민국 군의 열정과 위상을, 푸른색은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인의 마음을 상징한다.



마스코트

계룡시의 상징인 용을 캐릭터화하여 군문화엑스포 행사의 친숙성 도모와 군과의 화합을 지향하고자 보편적이면서 귀엽고 발랄한 캐릭터로 디자인했다. 이름은 ‘비상하는 계룡’의 줄임말에서 따왔다.

2020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프로그램

|**공식행사** 개장식, 개막식, 폐막식

|**특별행사** 충청남도 시·군의 날, 한가위 행사, 육군의 날, 해군의 날, 공군의 날, 해병대의 날

|**공연행사** 세계군악대공연, 엑스포주제공연, 로드 퍼포먼스, 프린지공연, 군악콘서트, 설민석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나라사랑 보훈 음악회, Again 우정의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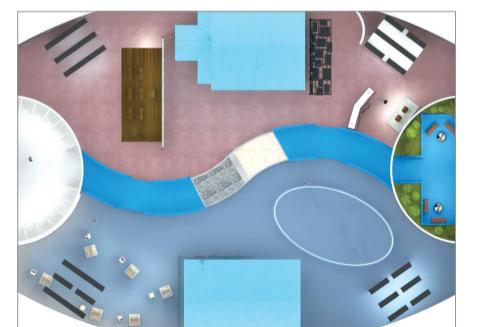
|**체험행사** 야외무기전시, 군 장비 탑승체험, 병영훈련체험, 가상현실 가격체험, 전투장비 분해·결합, 군신호 전달체험, 전쟁영화 속 한장면 체험, 세계 평화 염원 비둘기만들기 체험

|**부대행사** 기동훈련, 계룡산 안보등산, 계룡대 영내투어, 군식(食)조리 경연 대회, 국제드론레이싱 대회, e-스포츠대회, 밀리터리 댄싱 경연 대회, K-밀리터리 패션쇼, 평화의 꿈 소원지



미리 보는 엑스포 “이건 꼭 알고 가자!”

추진위는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서 세계평화관, 한반도희망관, 미래관, 대한민국국방관, 세계군문화생활관, 군과학화전투체험관으로 구성된 6개의 전시관을 통해 ‘군 문화 바로 알기→軍 문화의 미래가치 인식→가치를 더하는 기술과 생활문화→체험과 놀이로 삶의 생활화→군 문화의 미래 비전 공유’라는 엑스포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세계 군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려낸다. 전시관별 주제와 연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평화관(주제관)

전쟁과 평화-두 얼굴의 역사를 주제로 잔혹한 전쟁의 역사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개의 전시공간에 담았다.

‘평화 위에 잡든 이들의 기억 Yellow’는 기억과 주제의 공간으로, 전쟁 참전자와 희생자의 기억을 주제로 한 4D영상관으로 기획됐다. 특히 전쟁

② 한반도희망관

‘격동의 한반도, 희망으로 피어나다’란 주제 아래 한반도의 얼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형상화한 공간 구성이 돋보인다. 우선 동선을 따라 첫 번째 구역에서는 12종의 태극기의 변천사를 살핀 후, 한반도를 노린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발생한 전쟁과 분단의 역사,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까지 한반도의 여정을 함께 거닐 수 있다. 특히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

보·위용 뽐낸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요

- 기간 : 2020년 9월 18일(금)~10월 4일(일), 17일간
- 장소 : 충남 계룡시(계룡대 비상활주로 일원)
- 주제 : K-Military, 평화의 하모니
- 추정 관람객 : 총 131만 명(내국인 124만 명, 외국인 7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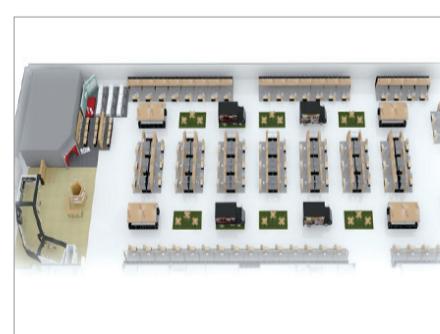


이 함께 걸었던 도보다리를 재현한 동선을 따라 격동의 한반도가 분단과 평화의 시기로 거쳐 통일된 한반도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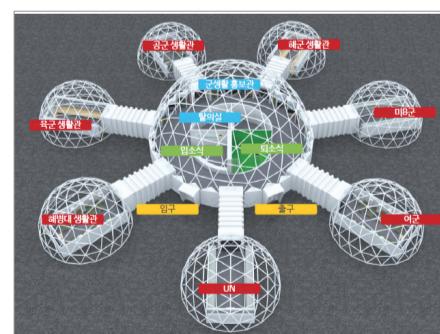


③ 미래관

‘자주국방, 평화를 부르다’란 주제로 대한민국과 세계의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미래관은 군 관련 첨단산업기술과 방위산업의 우수한 기술력 홍보를 목적으로, 국방분야 융합 신기술 및 비무기 체계 등을 통해 관람객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밀리터리 산업존에서는 게임과 VR, 완구, 드론 및 군용로봇 등을 통해 다양한 비무기 체계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각 군의 모습을 연출한다. 국방정책 존에서는 대한민국 국방의 역사와 미래의 전망, 전국 각 부대의 상징물을 전시한다.



⑤ 세계군문화생활관

‘진짜사나이 2020’란 부제 담겨 가상 입영체험을 할 수 있다. 이 전시관은 대한민국 3군의 생활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3군의 생활모습을 담은 전시는 물론 생활관을 그대로 재현했다. 입장 시 3군 중 하나를 택해 입소식 티켓을 전달받은 후 각 군별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시관 퇴장 시 전역카드를 제공하고 각 군별 총장 및 사령관과 퇴소 기념 사진촬영 등이 기다린다.



⑥ 군과학화 전투체험관

‘軍, 과학을 만나다’란 주제로 군의 과학화 전투훈련 체험 장비 및 실전과 같은 가상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시관에서 살펴본 훈련장비와 영상을 통해 익힌 훈련 체계를 바탕으로 사격체험관에 들어가 실제 과학화 전투 체험을 리얼하게 즐길 수 있다.



⑦ 지역산업관

‘충청남도의 미래를 만나다’란 주제 담개, 충남도와 계룡시의 6차 산업을 전시하고 생산물을 판매한다. 도와 계룡시의 홍보뿐만 아니라 관람객 편의와 휴게를 위한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이 마련된다.

/손유진 sy0319@korea.kr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낸 숨은 영웅들을 국가가 호명(呼名)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무공훈장을 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56,000여 명의 영웅과 유가족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습니다.

기간: 2019. 7. 24.~2022. 12. 31.

국민 참여 방법

- ▶ 군번을 알고 있다면 지금 바로 조사단으로 전화하세요.(1661-7625)
- ▶ 군번을 모르시면 먼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병적을 확인하고 군번을 확인해 주세요.
- ※ 우리 동네 숨은 영웅 찾기에 적극 참여하세요.

■ 무공 수훈자 혜택: 영예 수당 지급, 보훈 병원 진료, 국립묘지 안장 등

■ 상담 문의: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042-550-7382, 7399)



호국 영웅과 그 가족의 현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2040년, 수풀경제가 충남 이끈다

(다중적 순환체계)

충남의 미래

④ 풀뿌리 산업 지향

농식품은 8대 주력 산업

보호장벽 넘어 세계와 경쟁

가공업·상업·생산자서비스 등

지역산업 생태계 재조정

동을 지원하는 관광산업) 등의 서비스업도 국내외 수요가 늘며 활성화된다.

2017년 충남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편입되었다. 국경의 무의미 속에서 지역 단위의 폐쇄적인 경제 구조를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시대착오이다. 특정품목을 집중적으로 길러내는 ‘농장 경제’ 모델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수풀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순환 체계에 다양한 순환 체계가 추가되어야 한다. 2040년에는 그린 바이오산업, 소비재 경공업의 확대, MICE 산업 육성 등이 충남경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순환 체계에 자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 하나가 ‘풀뿌리 산업’이다. 오랫동안 생산 활동을 거쳐 습득되고 축적된 현장 지식과 노하우가 2040년 충남 경제에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수풀 경제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이 때문에 충남도는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서 시작해야 한다.

첫째, 제조업으로 편향된 제도 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공유 경제와 사회적 경제 등 새로운 경제 방식을 육성해야 한다.

이로써 충남 경제는 자생력을 지닌 경제의 선(先) 모델로 2040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충남연구원 홍원표 책임연구원·
이관률 연구위원



양승조 충남도지사(사진 왼쪽부터 일곱째)와 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서해선-신안산선 직결'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해선~신안산선 직결’ 총력 대응할 것

양 지사, 지방정부회의서 결의
군 소음법·중대 산재 예방 등
도민 안전 위한 현안 해결 약속

충남도는 지난달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제9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날 한마음 한뜻으로 ‘군 소음법 제정’과 ‘서해선-신안산선 직결’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도내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지방정부회의에서는 상반기 채

택 안건 및 시·군 건의사항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군사시설 및 군용비행장 훈련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근거법률 ‘군 소음법’을 제정코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이달 중 국방부·환경부·국회 등에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서울 진입시간을 단축하고, 고령자 철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해선-신안산선 직결’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직결 운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 시·군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도와 도내 15개 시·군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지자체 4대 위험작업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금은 민선7기 2년차에 접어들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라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도와 시·군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 나아가자”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539

Bio소재클러스터 조성…부여와 역량 결집

2년차 첫 시·군 방문 나서
‘Bio 신산업 발굴·육성’ 당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역 연계형 산업기반 구현을 위해 ‘충남 바이오소재 클러스터’를 부여군에 조성하는 데 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지난달 26일 민선 7기 2년차 첫 시·군 방문에 나선 양승조 지사는 부여군을 찾아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박정현 부여군수와 정책 협약을 맺었다.

양 지사는 부여군의 첫 행선지로 스마트원예단지를 찾아 미래성장 가능성

을 탐진한 후, 자리를 옮겨 도정 비전 및 방향을 공유하고, 현안 사항을 청취한 후 실현 가능성은 현장에서 확답했다.

민선7기 2년 차 시·군 방문은 예전과는 달리 도와 시·군이 함께할 최우선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도민과 약속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 지사는 이날 박 군수와 정책협약을 통해 ‘충남 바이오소재 클러스터’가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양 지사는 “부여는 세계최대규모의 스마트 원예단지 및 스마트온실과 배

후시설 설치 계획과 청정 농업지역 등 바이오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며, “바이오소재클러스터 조성에 부여가 앞장서도록, 이 사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양 지사는 부여군을 세계적 명성의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38년까지 7092억 원을 투입, 국제기구인 국립동아시아 역사 도시 진흥원 유치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자치행정과 041-635-3592

개선 교육 강화 및 출·퇴근 지원, 취업을 위한 정보접근성 확보, 장애여성을 위한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0-0258

산림박물관 풀벌레전시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양승숙)은 지난달 23일 충남도청에서 장애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을 진단하고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내 장애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장애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경제활동 중인 다수의 장애여성은 저임금 근로에 종사 중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귀뚜라미, 장수풍뎅이 등 살아있는 곤충 12종과 고소애, 쌍벌귀뚜라미 등 식용곤충 시식 코너도 준비돼 있다. 또한 중부권 최고의 자연생태 학습장인 금강 자연휴양림에서 숲해설가의 설명과

파파야 파종·육묘 최적은?

36°C 4시간 침지 후 ‘직파’

27공 트레이 사용 ‘효과적’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아열대 작물 파파야의 효율적인 파종·육묘 방법을 찾았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파파야 파종 방법 및 육묘 기술 연구 결과 항온기 25°C, 광 16시간 암 8시간 환경보다 36°C에서 4시간 침지 후 트레이에 직접 파종하는 방식이 더 빠르고 일정한 빌아율을 나타냈다. 또 육묘 용기는 40공 트레이를 사용했을 때보다 27공 육묘 트레이 사용 시(사진) 생체중은 70%, 뿌리의 건물중은 56% 더 높았다.

파파야는 동남아인들이 즐겨먹는 채소로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100g당 25kcal로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다.

농기원 김지광 박사는 “파파야의 효능을 알리고, 샐러드·생채·장아찌 등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기능성 건강 채소인 파파야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원 041-635-6076

2020년 토지행정 시책 공유

AR앱·원스톱 행정시스템 등

23건 신규 시책 발표·토론 이뤄져

충남도는 지난달 25일 공주 한옥마을에서 적극적인 토지행정 구현을 위한 ‘2020년 토지행정 시책 구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 토지행정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규

시책 발표 및 토론, 향후 토지행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로는 ▲지적기준점 정보 증강현실(AR) 앱 개발 ▲포켓복과

스마트폰 활용으로 내손에서 쉽게 확인하는 부동산정보 방안 등이 논의됐고, ▲우리동네 부동산시장 동향 발간 서비스 ▲지적행정 원스톱(One-stop)시스템 구축 등 신규 시책 23건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도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시책 중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효과성이 기대되는 것은 내년 토지행정 주요시책으로 채택할 것”이며, “적극적인 토지행정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관리과 041-635-2862

내년도 도민 제안사업 150억 원 편성

23일까지 제안사업 공모 접수

충남도가 2020년 예산 편성에 앞서 도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도 정책 사업과 시·군 소규모 주민밀착 사업 등 2개 분야로, 각각 7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도 정책 사업 분야는 5개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 간 연계 추진 가능한 사업을, 시·군 소규모 주민밀착 사업 분야는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도 누리집 도민참여예산 게시판이나 전자우편·팩스·우편·방문 접수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가능하다.

●예산담당관실 041-635-3153

간추린 도정



세부사항을 조율해 왔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주)아토이는 앞으로 일본 교육, 완구시장 등을 타깃으로 FUNT의 현지화 및 유통 마케팅에 나서게 된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041-590-0922

장애여성 경제활동 지원 모색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양승숙)은 지난달 23일 충남도청에서 장애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을 진단하고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내 장애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장애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경제활동 중인 다수의 장애여성은 저임금 근로에 종사 중이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경제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에 초점을 두고, 개인 차별 및 인식

함께 숲에 서식하는 곤충을 관찰할 수 있다.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331

11월까지 숲길 124km 정비

충청남도가 쾌적한 산행환경과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124km에 달하는 숲길을 정비한다. 도는 숲길 124km 정비를 위해 46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숲길 내 계단 보수와 노면 정비, 안내판 등을 설치한다. 특히 공주시 등 12개 시·군에 숲길 체험지도사를 배치,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돋는다 는 복안이다.

앞서 도는 금산 남이산림문화타운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 놀이터와 6·25 전쟁 당시 참호를 확인할 수 있는 모험의 숲길, 편백 숲을 활용한 치유의 숲길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숲길(4.7km)을 조성했다.

●산림자원과 041-635-2575

곡교천 상류 ‘국가하천’ 승격

천안과 아산을 가로지르는 곡교천 상류부 20.5km 구간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곡교천 상류부가 국가하천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당장 수해 등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물론, 친수 공간 조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곡교천 상류는 지방하천에 속해 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도는 이번 심의를 통해 국가하천으로 지정 확정된 것은 행정의 큰 성과로, 지방비 1124억 원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도는 곡교천 상류에 대한 정비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천과 041-635-4722

충남 술, 세계인 입맛 사로 잡는다

맛·향·후미 뛰어난 주향(酒香)

대한민국 넘어 세계적 명주로

충남도내 양조장에서 생산된 탁주류 2종과 과실주 2종, 약주 3종, 일반증류주 및 소주 3종이 충남을 대표할 술로 꼽혔다.

충남도는 지난달 26일 서울막걸리학교에서 열린 평가시음회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0주품을 '2019년도 충남술 TOP 10'으로 선정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6명의 평가단은 도내 40개 양조장에서 생산한 69개 주품에 대해 색상과 향·맛·후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종합평가 결과 80%와 시민평가단(38명)이 비교한 점수 20%를 합산한 결과, 충남을 대표할 10주품이 탄생했다.

'충남술 TOP 10'으로 선정된 주품은 ▲탁주류:우렁이쌀 손막걸리(7.5%), 술공병(9.0%) ▲과실주:추사애플와인(12%),

추사블루스위트(11%) ▲약주류:이상재명가소곡주(16%), 만세보령주(15%), 토박이소곡주(16%) ▲일반증류주 및 소주:추사40(40%), 불소곡주(43%), 두레양일반증류주(35%) 등이다.

지역별로는 예산·서천은 각 3주품, 천안·보령·논산·청양이 1주품씩 선정



충남술 Top 10 선정결과

주종구분	주품명(도수)	양조장명	비고(시군)
탁주류(2품)	우렁이쌀 손막걸리(7.5%)	양촌양조	논산
	술공병9.0(9%)	아리랑주조	청양
과실주(2품)	추사애플와인(12%)	예산사과와인	예산
	추사블루스위트(11%)	예산사과와인	예산
약주류(3품)	이상재명가소곡주(16%)	이상재명가소곡주	서천
	만세보령주(15%)	보령전통주	보령
증류주류(3품)	토박이소곡주(16%)	토박이소곡주	서천
	추사40(40%)	예산사과와인	예산
	불소곡주(43%)	한산소곡주	서천
	두레양 일반증류주(35%)	두레양	천안

됐다.

도는 선정된 '충남술 TOP 10'을 대상으로 시민 서포터즈단을 운영, 월 1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블로그, 유튜브 영상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해 충남술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참가, 수도권 및 대도시 전통주점 홍보 등의 프로모

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도내 주류 산업의 발전을 위해 충남술 Top10 선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충남술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활력과 041-635-4080

산림 서비스 높이고 휴양시설 늘린다

2037년까지 4008억 투입

산림복지 新페러다임 제시

충남도가 2037년까지 치유의 숲 등 11개 사업에 4008억 원을 투입, 산림복지 및 휴양시설 72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도는 도민들이 산림복지 서비스 혜택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고령화·소득 수준 향상 등

사회적 여건과 캠핑·등산·휴양 등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산림복지에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자연휴양림 신설·보완 13개소 ▲산림욕장 1개소 ▲치유의 숲 8개소 ▲목재문화체험장 6개소 ▲산림레포츠 3개소 ▲공설수목장 3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산림복지단지 3개소 ▲산촌생태마을 16개소 ▲유아숲 체험원 19개소 ▲등산로 등 숲길 2631km 등도 구축한다.

특히 보령~태안 해저터널 및 연륙교 개통에 따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내에 해안선을 활용한 특색 있는 해안생태형 산림휴양시설을 2022년까지 신규 조성한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산림복지와 휴양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 국토의 균형발전 등 공익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정책과 지속적인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산림자원과 041-635-4510

'겉절이' 와 '얼절이'

■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18)

겉만 소금쳐 살짝 절인 겉절이
열게 간 해 얼핏 절인 얼절이
같으면서도 다른 알쏭달쏭한 말

채소를 씻던 아내가 불쑥 질문을 던진다.

"겉절이하고 얼절이가 어떻게 다른 거야?"

머릿속에 물음표가 찍힌다. 그게 어떻게 다른 말이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 겉절이는 겉만 절인 거구 얼절이는 얼핏 절인 거여."

아내가 다시 묻는다.

"그니까 겉만 절인 거하고 얼핏 절인 거하고의 차이가 뭐야?"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이, 그게 서울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거하고, 충청도 애들이 학겨 맹기던 차이여."

"응, 그렇구먼."

아내가 다시 채소를 씻는다.

엊그제는 어느 분이 내 블로그에 놀러 왔다. 흥성에서 나고 자라고, 어른이 되어 도회지에 터를 잡으신 분이란다. 이런저런 추억담을 풀어 주시고, 맨 뒤쪽에 혼잣말처럼 질문 하나를 남긴다.

"… 또 다른 제 머릿속 기억은 '겉절이'를 어르신들이 '얼절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충청도 방언인지 아님 제가 너무 어려서 왜곡된 기억인지 모르겠네요. 충청도…그리워요."

겉절이와 얼절이는 같은 말이면서 다른 말이다. 겉절이는 '겉+절이', 얼절이는 '얼+절이'다. '절이'는 채소나 생선에 소금을 뿌려 간이 배도 록 한 음식이다. 말 그대로 '겉절이'는 겉에만 간이 배도록 살짝 소금을 뿌린 것이다.

이에 비해 '얼절이'는 얼핏 절인 것이다. '얼'은 '슬쩍, 열게'의 뜻을 가진 말이다. 간이 겉만 배도록 소

금 간을 열게 한 것이다. 생선에 소금 간을 살짝 한 것을 충청도 사람들은 얼간했다고 했다.

이 '얼간'은 요즘도 흔히 밥상에 오르는 '얼간고등어'에 생생하게 살아 있다.

결국 겉절이나 얼절이나 채소를 살짝 절여 만든 음식이 된다. 같은 음식을 두고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말의 근원은 서로 다르다. '겉'과 '얼'은 엄연히 다른 말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적 충청도를 추억하는 그 분을 위해 정성껏 답글을 쓴다.

"겉만 절인 거나 얼핏 절인 거나 그게 그거겠죠? 예전 충청도에서는 '얼절이'라 썼는데요, 지금은 표준어화가 크게 진행되어 '겉절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절이'는 표준어 '겉절이'의 충남 방언이랍니다."



이명재
예산군 내포제
시조 보존회 회장



탄소포인트제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체계



참여항목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참여대상

• 개인사업
가정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실 사용자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 학교
일반건물 건물관리자

우리집 에너지! 이렇게 절약하세요

- 실내 적정온도를 지켜주세요.
- 세수, 양치, 사워 시 물을 받아서 사용하세요.
-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 두세요.
- 세탁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해 주세요.
- 냉장고 문은 자주 닫지 말고, 음식은 가득 채우지 마세요.
- 절전형 조명으로 교체하고, 사용하지 않는 조명은 끄주세요.

문화행사

조각 전시회 '꿈꾸는 아이들'

■일시 : 8월 1일~31일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곳이 간절할 때, 시원한 미술관에서 즐기는 전시바캉스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보령시 소재 모산조형미술관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꿈꾸는 아이들' 노대식 조각전을 기획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조각작품들을 만나보자.

■장소 : 모산조형미술관
 ■문의 : 041-933-8100



일곱 개의 소리 그리고 춤

■일시 : 8월 17일
 ■충남문화재단 선정 신진예술가들로 구성된 양상을 소리이슈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다. 피아노, 클라리넷, 비올라, 대금, 헬로를 비롯해 북미원주민 피리 연주,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장소 : 천안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문의 : soriissue@naver.com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초청 내한

■일시 : 8월 15일
 ■8월 15일 광복절 기념 공연으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 내한해 한국 민요와 가곡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 준다. 지휘 임재식, 바이올린 전효식이

주 출연자로 나서 스페인과 우리나라의 민요와 가곡들을 선보인다.

■장소 : 천안예술의 전당
 ■문의 : 1566-0155



제22회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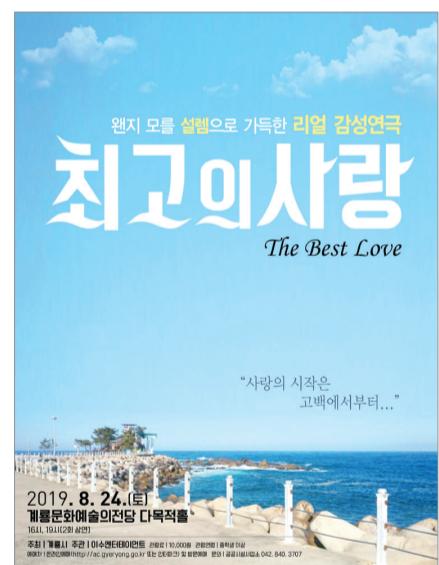
■일시 : ~8월 10일
 ■아산 신정호수공원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음악으로 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8월 8일에는 영화 미녀와 야수 상영, 8월 9일에는 멘토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공연, 8월 10일에는 제1회 아산시 달그락 락밴드 페스티벌이 예정돼 있다.

■장소 : 아산 신정호수공원 야외음악당
 ■문의 : 아산문화재단 041-534-2634

공룡뮤지컬 포켓다이노

■일시 : 8월 18일
 ■국내 최초의 동물 뮤지컬을 제작했던 주주메카가 대형 공룡 애니메트로닉스 기술력과 뮤지컬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생시킨 리얼공룡 뮤지컬. 5M 크기의 초대형 공룡들이 펼치는 신나는 뮤지컬의 세계에 빠져보자.

■장소 : 공주문화예회관
 ■문의 : 1577-8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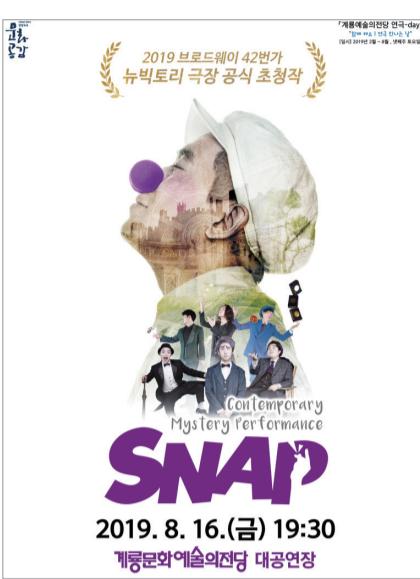


연극 '최고의 사랑'

■일시 : 8월 24일
 ■일상 속 우리들의 순수했던 사랑이

야기와 함께 잠시 옛사랑의 기억을 떠 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 남들에겐 평범해 보이지만 나에게는 최고의 사랑임을 느끼게 하는 3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아련한 감동과 웃음을 만날 수 있는 연극. 365일 가슴 떨리는 사랑을 꿈꾸는 당신에게 추천한다.

■장소 :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문의 : 042-840-3707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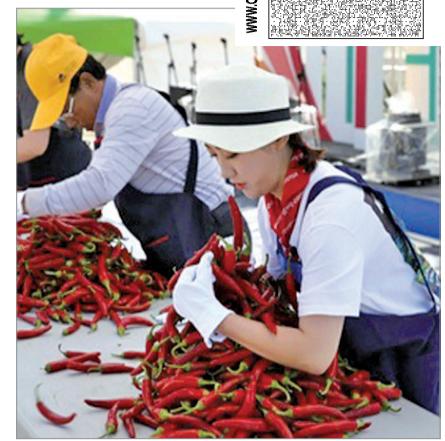
■일시 : 8월 16일
 ■스냅(SNAP)은 온 가족,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난버벌 공연이다. 총 46여회에 걸쳐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더헤럴드(The Herald), 스카츠맨(The Scotsman) 등 많은 영국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세계적인 평론지 브로드웨이월드에서는 만점인 별점 다섯 개와 함께 2016 에든버러축제 3300여개의 공연 중 'TOP 6 공연'에 올라지기도 했다.

■장소 :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문의 : 042-840-3707

찾아가는 버스킹-투오브어스

■일시 : 8월 10일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으로 해금 연주자 은한(송해연)이 금산을 찾는다. 전통한복을 입고 국악기 해금을 연주하는 은한은 현재 서울시 <거리공연단>(2019 대표팀. 국악 부문 1위), 고양 신한류예술단, 경기도 <거리로 나온 예술가>, 용인시 <버스킨 아티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 대구, 문경, 부산, 전주 등 전국적으로 연주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가까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악기인 해금으로 친숙한 곡들을 연주하여 관객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며, 스토리텔링 식으로 곡을 해설하는 은한만의 공연방식은 친숙함 속 새로운 느낌을 가져다 준다.

■장소 : 금산 충효예공원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

■일시 : 8월 30일~9월 1일
 ■청양군 백세건강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청양 대표 축제다. 청양고추와 구기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체험행사 등을 즐기며 청양의 맛과 멋, 향을 느껴보자.

■장소 : 청양읍 은천동길 16-6
 ■문의 : 041-940-2302

가족매지컬 '매지컬 알라딘'

■일시 : 8월 24일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알라딘이 매지컬로 돌아왔다. 매지컬은 마술(매직)과 뮤지컬이 합쳐진 신개념 공연이다.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 자스민 공주가 만들어내는 환상의 동화 나라로 빠져보자.

■장소 : 충남도청 문예회관
 ■문의 : 041-635-3815



논산시민공원 버스킹

■일시 : ~9월 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주말 나들이 장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논산 시민공원으로 한번 떠나보자.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마술쇼, 밴드공연,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선보인다.

■장소 : 논산 시민공원
 ■문의 : 041-746-5152

석장리박물관 특별전

■일시 : ~2020년 2월 28일
 ■공주 석장리박물관 손보기 선생 기념관에서는 '바다를 건넌 선사인들'이란 주제로 흑요석에 대한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흑요석은 후기 구석기시대에서부터 신석기시대까지 선사시대 인류에 의해 활발히 사용됐다. 일본과 한국에서 출토된 흑요석에 석기들을 통해 바다를 둘러싼 한반도와 일본 열도 간 선사시대 인류의 삶과 문화를 이해해보자.

■장소 : 공주 석장리박물관
 ■문의 : 041-840-8924



그림으로 떠나는 충남여행스케치

안면도 사랑의 바위섬

자연이 머무는 곳 안면도 바닷길로 이어진 섬이 아닌 섬, 여려번 찾았던 곳이지만 계절따라 변하는 정겨움이 가득한 바닷길이다. 여우섬 부상탑으로 길게 이어지는 부교와 천수만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면암을 지나 낙조의 명소인 할미, 할아버 바위와 모래사구가 어우러지는 꽃지 해수욕장에 다다랐다. 이 바위는 약 1200여년전 안면도의 책임자였던 장군이 바다로 출정을 하면서 부인이 바닷가 높은 바위에 올라 애타게 남편을 기다리다 바위 위에서 죽고 만 이야기가 전해져온다. 그 뒤 폭풍우가 휘몰아 치며 천동이 치더니 망부석 앞에 큰 바위가 솟아올라 이를 할미, 할아버 바위라 부르게 되었단다. 애듯한 사랑이야기를 담아 멀리 할미, 할아버 바위와 무지개빛 파라솔 아래 해산물 즐기고 있는 모습을 화폭에 담아 보았다.

글·그림/서양화가 홍기옥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내포칼럼



문대규

순천향대학교 디스플레이
신소재공학과 교수

글로벌 디스플레이 경쟁 과열
한국산 OLED 세계 95% 점유
극한 소재 기술력 확보 지속돼야

충남, 디스플레이 기반산업 밀집
‘혁신공정 플랫폼’ 성공하려면
기업·연구기관 유치·육성 절실

1946년 미국 RCA사가 세계 최초로 브라운관 TV를 양산한 이후로, 디스플레이는 브라운관 시대를 지나 평판 디스플레이 시대를 거치면서 노트북, 모니터, 모바일 기기, TV 등으로 응용 분야를 확대하며 급속히 성장했다. 1980년대 중반 일본의 샤프, 히타치 등이 대량생산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LCD는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이 90% 이상의 점유율로 시장을 선도했다. 그러나 중소형에 집착하며 대형 LCD 시장을 주도하지 못해 10% 이하로 점유율이 하락했으며,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일본의 샤프는 대만의 흥하이에 매각됐다.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히타치, 도시바, 소니 연합체인 재팬디스플레이 (JDI) 또한 폐업 위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생산을 시작하여 세계 10위권 밖에 있었으나 대형 LCD 혁신 기술 개발, 모니터와 TV 시장을 위한 적기 투자에 의해 2001년 이후 최근까지 40% 이상의 점유율로 1위 국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LCD 기술이 보편화되며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중국이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막대한 투자를 진행,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고 보편화된 LCD기술은 자본 투자에 의해 쉽게 추격이 가능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장의 주류로 등장한 OLED는 우리나라가 점유율 95% 이상으로 지난 10여년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OLED는 LCD에 비해 공정기술 확보가 어렵고 노하우가 집약되지 않으면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이다.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사니오, 소니 등에서 생산을 시도했으나 수율 확보가 어려워 생산을 중단했다. 중국 또한 수년간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생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하는 유연 OLED는 난이도가 더욱 높다. 우리나라가 독점하고 있는 OLED는 스마트폰, 모바일 PC, TV 영역으로 응용분야가 확대됐으며 폴더블 스마트폰, 두루마리 TV, 부착형 TV 등 초고난이도의 유연 OLED를 활용한 다양한 미래형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전형적인 사각형 모양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양과 공간에서 자연색을 표현하는 초실감형 디스플레이, 각종 센서와 회로를 내장하여 사용자와 교감하는 디스플레이 등 이상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극한의 소재와 공정기술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기술을 확보한 국가와 소수의 기업만이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충청남도는 최근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에서 시험생산에 이르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술,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소재공정 기술 개발에 의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함과 동시에 소재장비 기술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디스플레이 응용제품에서 원재료에 이르는 다양한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지해 자체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아직까지 이러한 기업과 연구기관이 충분하지 못하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 육성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홍주목사와 내포동학 맹장의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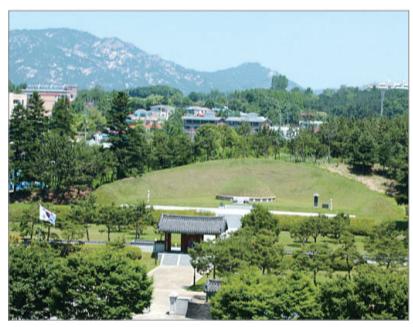
사람이 곧 하늘이다(人乃天)

⑩홍성의 동학농민혁명

홍성은 일제가 홍주와 결성을 합하여 하나의 군을 만들고 개칭한 지명이다. 홍주가 내포지방 행정의 중심이자, 문화적 구심 역할을 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홍성이란 지명은 내포지방 사람들에게는 치욕적인 이름이다. 조선 말 홍주의 행정구역은 매우 복잡하여 멀리 당진까지 월경지를 둘 정도로 관할 구역이 넓었다.

이런 홍주에 동학이 본격적으로 전래된 것은 내포 동학의 맹장이었던 이창구와 관련 깊다. 이창구는 면천을 대표하는 대접주였지만 광천과 결성에 동학을 전파하고 조직을 넓혔다. 이 사실은 홍주목사 이승우의 막장이던 홍건이 남긴 『홍양기사』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는데, 여기서는 홍주의 대표적 접주로 김영필, 정대철, 정원갑, 이한규, 나성뢰 등을 꼽았다.

1894년 10월 동학농민혁명이 본격화되어 내포지방이 동학농민군의 영향력 아래 떨어졌을 때 홍주성만은 견고하게 버텼다. 그 이유는 목사 이승우가 당시 지방관치고는 청



홍주邑사총 전경

렵하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승우는 부임하자 앞으로 있을 동학 조직과의 대결을 대비하여 성루를 고치고 무기를 점검하였다.

1894년 10월 1일 내포의 동학농민군이 기포한 이후, 10월 5일 결성에서 수천의 동학농민군이 결성한 관아를 점령하여 무기를 빼앗아 스스로 무장하였다. 10월 7일에는 오천 충청수영을 습격하여 조선 수군의 무기를 탈취하였다. 이때 홍주목사 이승우는 중군장 김병돈에게 군사를 주어 밭 빼르게 대응하게 했다. 이승우의 대처로 내포지방 동학농민군은 수세에 몰렸는데, 예포대도 소인 삽교 목소를 습격 당해 운산 여미별로 밀려나기까지 했다. 여미별에서 심기일전한 내포지방 동학농민군은 승전목에서 일본군을 이

기고 신례원에서 홍주관군과 유희군을 물리쳤다. 이제 내포지방은 홍주성만 남아 저항할 뿐이었다.

내포지방 동학농민군은 신례원에서 한양으로 향하기 전에 홍주성을 먼저 치기로 했다. 덕산에서 하룻밤을 유숙한 동학농민군은 기세를 몰아 홍주로 향했다. 홍주 입구 빙고 치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동학농민군은 곧바로 홍주성을 포위했다. 10월 28일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홍주성 공격은 맹렬하였다. 하지만 홍주성의 관군과 일본군은 성벽에 은신하여 밀려오는 농민군을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다. 이 때문에 동학농민군은 한때 조양문 앞까지 진출하였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홍주성 전투에서 패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때부터 일본군과 관군은 닥치는 대로 농민군을 학살하기 시작하였다. 사로잡힌 동학농민군은 예외 없이 처형되었다. 이렇게 홍주 북문에서 처형된 동학농민군만 어립잖아 수천에 이른다. 홍주의 병종이 동학농민군의 무덤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사)당진시동학농민혁명승전목 기념사업회

마음을 내려놓을 곳

나태주의 풀꽃편지



시인·풀꽃문학관장

지난 일요일 오후 시간. 우리 교회에서 새 신자 환영집회가 있었다. 나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초청받았다. 물론 교회에서는 신앙의 문제에 집중해서 이야기해야 하지만 나는 좀 더 포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시급한가.

아무래도 물질의 문제보다는 마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다. 살아가는 데는 일차적으로 물질적 요인이 중요하다. 하지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마음의 문제, 정서의 문제가 또 중요하게 다가온다. 의외로 인간은 물질에 지배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정서적 요인에 의해 자주 흔들리는 존재이다.

몸이 아픈 것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가 행복이라 말하고 불행이라 말하는 것들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서적 요인이 지배하는 영역의 일들이다. 사실 우리

는 지금까지 물질적 풍요만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다. 그 결과 우리는 그런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제각기 살기 힘들다 하소연을 하지만 물질로서는 분명 잘 사는 것 같다.

문제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내려놓을 장소이고 마음을 맡길 대상이다. 그 장소와 대상이 어딘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 친구와 찾집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일 수도 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맡아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나아가 나는 내가 쓰고 있는 시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고달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맡기고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찾아 읽는 시가 된다면 그 시는 최선의 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나의 시에 거는 기대이고 나의 시에 요구하는 다급한 주문이다. 돈이나 물건을 얻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마음만 얻기만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세계이고 또 감동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이다.

아산 ‘백의종군로’를 되살리자

생생현장리포트

임재룡
온양신문사
편집국 실장

길’, ‘나가신 길’, 그리고 어머님의 부음을 받고 시신을 모시러 가고 온 길과 나라에 목숨을 바치고 상여에 실려 간 길이 있다.

이중 ▲‘충의길’(7km, 현충사-이충무공묘소 구간) ▲‘효의길’(14km, 현충사-인주 해암리 계바위 구간)

▲‘통곡의길’(13.7km, 현충사-넙티고개 구간)을 지역의 한 대학에서 개발

해 이 길에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다양한 역사탐방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운영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초기에 지역의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몇 차례 행사를 진행하다가 현재는 흐지부지된 듯하다.

아산시도 예전에 영화 ‘명량’이 공전의 히트를 치며 전국에서 이순신 장군 신드롬이 일자 거기에 편승해 시가 보유한 이순신 사료를 활용, 문화관광도시로서의 홍보에 적극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그때 뿐, ‘명량’이 전이나 이후나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현재 백의종군로는 심지어 안내판도 하나 없이 연구소 관계자들과 일부 향토사학자들만 알고 있을 뿐 일반인은 어디인가 알 수 조차 없다.

최근에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는 다시 한번 아산지역 백의종군로에 대한 심층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연구소와 아산시에 바라건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코스를 확정하고 안내판과 이정표 등을 설치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기법을 활용해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 누구나 아산 지역의 백의종군로를 걸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 육상 '샛별' 탄생...“경쟁자는 바로 나”



계룡중학교 양예빈 선수

여중부 200m 국내 신기록 달성
 전국체전 계주 역전 영상 화제
 방탄소년단 영상 보며 힘 얻어



제40회 전국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에서 양예빈 선수가 200m 결선을 1위로 들어오고 있다.

“언제나 1등을 목표로 하진 않아요. 그저 조금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노력할 뿐이죠.”

‘여중생 볼트’, ‘육상계 김연아’, ‘계룡여신’...충남 계룡중학교 양예빈(15) 선수에게 붙는 화려한 수식어에 비해 그녀의 목표는 다소 소박했다.

양 선수는 지난 5월, 익산에서 열린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육상계의 새로운 샛별로 떠올랐다. 지난 대회에서 양 선수는 육상 여중 200m(25.20초), 400m(55.94초), 1600m 계주 등 총 3개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양 선수의 기량이 가장 돋보였던 것은 1600m 계주였다. 양 선수는 다른 팀과 큰 격차로 벌어진 상태에서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엄청난 속도로 앞서

던 선수를 따라잡고 1위로 결승선에 도착했다. 관중석에는 환성과 박수가 비해 그녀의 목표는 다소 소박했다.

양 선수는 지난 6월 중·고등학생, 대학생, 실업팀이 모두 참가한 한중일 친선육상대회에서는 400m를 55.65초에 끊으며 2위에 랭크됐다. 1위가 실업팀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실력이다.

2019 홍콩 인터시티 국제 육상경기

대회에도 출전한 양예빈은 200m 24.98초, 400m 56.03초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며 명실공이 육상계 ‘라이징 스타’로 등극했다.

161cm의 키의 양 선수는 100cm의 긴 다리 길이에서 나오는 넓은 보폭과 강한 근지구력이 강점이다.

비교적 왜소한 체격이지만 다부진 눈빛에서 그의 ‘악바리근성’이 엿보인다. 성인도 힘들어하는 하루 5~6시간의 훈련을 너끈히 소화한다는 양 선수.

그의 곁에는 언제나 김은혜 코치가 있다. 육상을 시작하게 된 것도 양 선



양예빈 선수가 계룡시공설운동장 육상트랙에서 힘을 내고 있다.

수의 재능을 눈여겨 본 김 코치 덕분이었다.

“코치님은 제가 코치 그 이상의 존재예요.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 못 어울려서 외롭지 않냐고 하지만 제겐 큰 언니 같은 코치님이 있어 외롭지 않아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것도 섭세한 부분에서 피드백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코치님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 이후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에 대해 양 선수는 ‘과분하고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에 달리는 응

원의 댓글에서 큰 힘을 받는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양 선수에 대한 매스컴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지만 그의 일상에는 변함이 없다. 줄줄이 이어지는 각종 대회 준비로 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의 연속이다.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덕분일까.

양 선수는 본지 인터뷰 직후인 지난 달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제40회 전국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 여자 중학교 200m 결선에서 24초92로 우승했다. 비에 젖은 트랙과 초속 1.3m의 맞바람이 부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개인 최고 기록과 대회 신기록이었다.

한국 육상의 ‘샛별’로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양 선수. 매사 진지한 태도와 차분한 표정에도 또래의 활달함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그가 ‘최애’한다는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나눌 때다. 멤버 중 ‘뷔’를 가장 좋아한다는 양 선수는 훈련으로 힘들 때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이나 영상을 보며 기분을 달랜다.

양 선수는 “아직 대단한 선수가 아닌데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코치님이 주신 피드백을 하나하나 되새겨 앞으로도 개인 기록을 하나하나 깨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혜동 khd1226@korea.kr

할머니 사시던 슈퍼, 재탄생하다

양코르채운 지은애·남경욱 부부

[당진]파란 슬레트 지붕에 빨간 우체통을 가진 가나안슈퍼. 가나안슈퍼는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면서 사람들의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러던 올 봄, 부산에서 올라온 한 부부가 이 집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뚝

딱딱따 집을 손보는 지은애·남경욱(33·사진) 부부의 손길에서 이곳은 ‘양코르채운’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시 태어났다.

당진에 온 부부는 손수 공간을 꾸며나갔다. 전기·수도 공사를 제외한 모든 작업이 부부의 손에서 이뤄졌다. 2개월을 예상했지만 뜻하지 않은 일로

공사는 3개월 간 이뤄졌다. 부부는 유투브를 통해 시멘트와 물을 섞는 비율을 공부하면서 손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부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건물을 최대한 부수지 않고 ‘살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양코르채운에서는 옛날 건물의 모양새와 구조가 그대로다. 천장에는 나무 뼈대를 볼 수 있고, 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활터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부부만의 감성이 더해졌다. 20대 때부터 모아온 부부의 수집품들이 양코르채운을 채워갔다. 손 때 묻은 선풍기와 전기포트, 1993년 대전엑스포 공식 뱃지, 88서울올림픽 기념접시, 타자기, 다이얼을 돌려 사용하는 전화기 등 부부의 수집품들은 제 집을 찾은 것 마냥 양코르채운에서 빛을 발했다.

이들 부부는 “지역에서 마땅히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없는 만큼 양코르채운이 복합문화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아연/당진시대
 zelkova87@hanmail.net

행복을 찾는 마음의 주문

불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했던 작가는 ‘이게, 행복이 아니면 무엇이지’라는 책을 통해 불행하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이미 행복은 우리 곁에 존재함을 알려준다.

이 책에서 작가는 자신의 일상 속 경험과 이웃의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의 일화를 통해 행복의 의미를 밝혀내기도 한다. 또한 줄리언 반스, 장강명, 밀란 쿤데라의 소설 그리고 JTBC 비정상회담, 영화 Her 등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매체 속 구절과 대사를 통해 행복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이 책이 행복을 다룬 다른 책과 차별되는 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경험과 생각, 문학작품 등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고 여기에 프로이트, 융 등의 심리학 이론을 접목시키거나 니체, 라캉, 버트란드 러셀 등의 철학적 사유와 연결해 논리적

인 근거에 의해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펼쳐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이 어렵지 않게 쉬운 단어와 단순한 문장으로 설명되어 바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 더욱 흥미롭게 느껴진다.

“‘신곡’의 첫 문장이기도 한, ‘인생 중반에 이르러 길을 잊고서 어두운 숲을 헤悌했다’는 단테의 말을 기억해본다. 길고 긴 여행은 그렇게 헤悌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것이 아마 진정한 성숙을 향해 가는 길일 것이다.”(p. 236)

꽉꼭한 삶 속에서 항상 불행하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행복을 찾아 헤맬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책이다.

엄은진
충남도서관 사서

수족구병

건강칼럼

진병료
홍성의료원 진료과장

손, 발의 발진과 입안의 궤양성 병변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수족구병이라고 불리며, 주로 4세 이하의 소아에게 발생합니다.

장바이러스의 일종인 콕사키 바이러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의 감염에 의해 생기며, 특히 엔테로바이러스 71은 뇌수막염이나 뇌염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주로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 수포의 진물 등으로 비말감염되고, 때로는 분변 등에서 경구 감염됩니다. 감염된 환자와 접촉하면 약 4~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열, 식욕부진, 권태감이 나타나면서 수포, 궤양 등이 손, 발, 입안에 생기게 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가능하면 입원하여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면서 경과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행복이 아니면 무엇이지’의 저자 김혜령은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카카오의 ‘브런치’에 ‘평화군데라’라는 필명으로 소박하지만 잔잔한,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글을 쓰는 작가이다.
 ‘불안이라는 위안’으로 마음 속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으로…농촌·농업을 ‘교육의 장’으로”

더행복한마을

(20) 홍성 문당환경농업마을

풀무학교 가르침 실천한 땅

풀과의 전쟁은 ‘오리농법’으로

‘문당-홍동-홍성’으로 확장해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 지정



친환경농 옆의 둑병에서 생태 관찰 중인 방문객들의 모습

오늘날 홍동면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장이다. 1976년부터 시작한 유기농업을 바탕으로 ‘생태와 환경’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을 만들어 왔다.

그 결과 꾸준히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친환경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방문객도 연간 3만여 명에 달한다.

보통 농촌마을의 방문객이 체험과 관광을 목적인 경우가 많지만, 문당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교육’이 목적이다. 이들은 환경농업 교육관에서 강의와 교육을 듣고, 직접 오리농법을 체득하며 농촌과 농업의 현장화 미래를 모색한다.

이 문당마을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농업을 시작하고, 1994년 우리나라 최초로 오리농법을 도입한 이가 바로 주형로(61) 마을운영위원장이다. 문당마을 출신으로 평생을 마을과 함께해 온 주 위원장은 고다니 준이치가 풀무학교에 전파한 유기농업 지식을 밀거름 삼아 도전장을 내밀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풀과의 전쟁. 주 위원장 논의 일은 다른 논보다 싹을 1만원이나 더 얹어줬지만, 힘든 일로 소문이 났다. 인력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규모를 줄이려던 때, 풀무학교 시절 스승이던 흥순명 교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1985년, 경남 창녕에서 열린 일본

오리농업인회 회장 후루노 다카오가 오리농법에 대해 강의한 자료였다. 어린 청둥오리를 논에 넣어 기르면, 오리가 돌아다니는 동안 흙탕물이 돼 햇볕이 차단되고 땅이 다져져 풀이 자라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오리가 각종 별레를 잡아먹고 배설물은 거름이 되어 농약은 물론 비료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농사법이었다.

그렇게 1994년 마을에서 세 가구가 시작한 오리농법은 이듬해 19가구가 참여하고 점차 관심이 늘면서 ‘홍성친환경작목회’를 결성해 본격적 발을 끼게 됐다.

주 위원장과 마을의 일이 전국 일간신문에 소개되며, ‘오리를 보내주



강연 중인 주형로 위원장

세요’란 제목의 기사가 알려졌고 소비자로는 500명, 금액으로 1950만원의 지원금이 모였다. 이 중 950만원을 오리 구입에 쓰고 나머지는 마을의 첫 기금의 종자돈이 됐다.

1999년 마을은 환경보전농업마을로 지정되고 그간의 경험을 밀거름 삼아 100년 미래를 설계하기에 이른다. 전략은 ▲넉넉한 마을 만들기 ▲오손도손한 마을 만들기 ▲자연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자연과 조화되는 만들기로, 이를 통해 마을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며,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성을 꾀한다.

‘생각하는 농민 준비하는 마을’이란 부제 답게 문당리는 농촌과 농업

의 위기를 걱정하기보다 정면 돌파로 맞서나가는 길을 택한 듯하다.

이런 문당의 전략은 인근으로도 퍼져 2010년엔 홍동면 내 환경보전농업이 220농가 80만 평 규모로 확대됐다.

나아가 2014년엔 홍성군이 전국 최초로 친환경특구 1호로 지정되도록 이끌었음은 물론이다. 문당마을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전체 농촌과 농업의 미래에 대한 짐이 실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교육이 파괴시킨 농촌을 교육을 통해 살려내는 것이 당면한 최고의 목표다.

“농촌은 체험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야 해요. 자연과 공존하고 더불어 사는 삶, 도시와 농촌이 행복한 나눔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촌이 바로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 위원장은 문당에 오는 방문객들을 체험객으로 여기보다 교육생으로 여긴다. 환경농업교육관에서 유기농업의 역사와 필요성을 깨닫고, 오리가 뛰놀고 메기가 헤엄치는 친환경 논에 맨발로 뛰어들어 생태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체득하도록 돋는 것이 주 위원장과 문당마을의 목표다.

/손유진 syj0319@korea.kr

“길에서 태어났어도 우리 이웃이죠”

김하연 길고양이 사진작가

촬영하다 좀도둑 오해 받기도

“길고양이를 이웃으로 대해야”

[홍성]“허술한 길고양이 집사 겸 찍사(찍는사람) 김하연(49)입니다.”

지난달 충남문화재단 개최된 ‘운칠기심’, ‘따뜻한 공존’ 사진전을 전시한 김하연 사진작가를 충남도서관에서 만났다.

그는 길고양이만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다. 김 작가는 2004년 우연히 길을 걷다 촬영한 길고양이의 눈빛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길고양이를 촬영하기 위해 밤낮, 건물 옥상, 길거리 등 가리지 않고 길고양이를 찾았다는 것이다.

길고양이를 촬영하러 다니면서 당황스런 경험도 많았다. 제법 큰 키에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니 종종 도둑이나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 경찰에 신고 된 적도 있다. 심지어는 길고양이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들



김하연 작가가 자신의 작품 사진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왜 찍느냐고 의아해했다.

“길거리에서 쥐를 본 경험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을 겁니다. 그 쥐들을 전부 길고양이가 사냥해주는 덕분이거든요”

일본이나 말레이시아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생명체에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단다. 혹여나 길고양이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새끼고양이는 가급적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람 냄새가 베면

어미고양이가 자기 새끼를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길고양이가 로드킬을 당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길고양이는 반응속도가 매우 민첩한 동물”이라며 “고양이가 사고를 당할 정도라면 그 다음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길고양이는 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이웃입니다. 길고양이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날을 꿈꿉니다”.

김경미/홍주신문
rlarudal4767@daum.net

논산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논산]논산시는 오는 16일까지 2019년도 건강한 모유수유아선발대회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오는 23일 개최되는 건강한 모유수유아선발대회는 모유수유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다.

참가 자격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4개월~6개월(2019.2.6 ~ 5.5) 사이의 모유수유아로, 심사기준은 체중, 신장, 머리둘레 등 소아 발육상태, 신체발달, 올바른 모유수유 실천과 지식 등이다.

최우수아 1명, 우수아 2명, 장려아 3명을 선발 시상할 예정이며, 상위 3명은 충남도에서 개최하는 제18회 모유수유선발대회에 참가 할 자격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41-746-8064)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시 제공

새로 배우는 충남학 ⑯

갯벌 40% 감소와 기후변화로

바다생물, 사과 채소 소멸 위기

졌다.

열대야 일수는 1973년부터 1993년 까지 평균 2.5일이었으나, 1994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5.7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폭염 일수도 평균 7.8일에서 9.6일로 증가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농작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기온이 1°C 상승하면 사과의 주산지로 알려진 예산지방은 사과 재배의 적합지에서 준적지로, 2°C 상승하면 부적지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의 특산물인 배와 포도 역시 비슷한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시설 재배하는 화훼나 채소류도 기후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병충해와 잡초가 유입되어 그에 따른 피해도 예상된다.

생물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그러나 옛날부터 충남에서 충남인들과 함께 살아 왔고 현재에도 살고 있는 생물들의 미래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신현철 (순천향대 생명시스템학과)



당진 왜목마을에서 조개를 캐고 있는 관광객들

태풍도 피해간 보령머드축제

181만 명 방문 성료

[보령] 지난 28일 막을 내린 제22회 보령머드축제에 국내외 181만여 명이 방문해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한류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머드축제는 1998년 개최된 이래 처음으로 평일 야간 개장을 도입하고, 역대 최강의 K-POP 공연으로 남녀노소 어우러지는 지구촌 축제로 마

련됐다.

지난 19일 개막 후 28일까지 10일간 유료체험 입장객은 3만7899명, 전체 방문객은 181만753명으로, 이중 외국인 비율이 21%인 38만7501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태풍 다마스와 장마로 전체 축제기간 10일 중 7일 동안 비가 내리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축제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찾는 축제임을 입증한 것.

외국인 참가자들의 국적도 예년보다 다양해졌다.

북미와 유럽 중심에서 인도와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국가의 방문이 활발해졌고, 지난해 사드 영향으로 감소한 중국인 관광객 역시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도정신문팀

멸종위기 '삵' 태안해안서 실체 최초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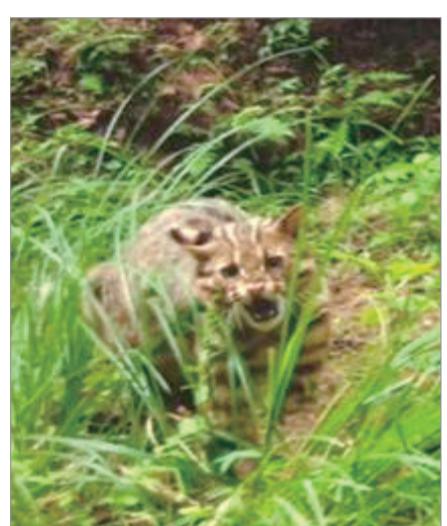
건강한 생태계라는 증거

저어새, 수리부엉이도 발견

[태안]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삵(사진)이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최초로 발견돼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자원모니터링 과정 중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삵의 실체를 최초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삵은 그간 문헌기록으로만 남아있거나, 배설물 등 서식 흔적만 발견되었으나, 이번 자원모니터링 과정에서 사구습지와 곰솔림에 설치한 무인센서카메라에 먹이를 사냥하는 삵의 실체가 최초로 포착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산림생물자원관의 자료에 의하면, 식육목 고양이과에 속하는 포유류로 회갈색 털에 회백색 뺨에는 세 줄의 갈색 줄무늬가 있다.

몸 길이는 45~55cm, 꼬리는 25~32cm

이다.

쥐, 청설모 등의 설치류, 꿩, 산비둘기 등의 조류를 사냥하는 최상위 포식자로 생태계 균형을 유지시킨다.

이번 상반기 자원모니터링에서는 삵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저어새, 2급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수리부엉이 등의 다양한 생물종도 관찰되어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김영석 해양자원과장은 "삵의 실체 확인과 다양한 생물종의 신규 발견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태무/충남농어민신문
sambongsan8549@hanmail.net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261명 동참

교통 대체 수단 마련 필요

반납시 무료환승 카드 지급

천안시, 최초 시행

[천안] 천안시가 시행하고 있는 고령운전자(만 70세 이상) 면허증 자진반납 시행 4개월 동안 261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에 따르면 약 4개월간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시책을 추진한 결과 7월 19일 현재 261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만원 교통카드 수여 대상자

는 233명, 30만원 대상자는 28명으로 집계됐다.

천안지역 운전면허 소지자는 40만 8000명으로 이 중 70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4%인 1만6300명으로 파악됐다.

천안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어 면허증 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책으로 이번 제도를 도입해 15개 50만 이상 도시 중 최초로 지난 4월 1일부터 면허증 자진반납 시 어르신용 무료환승 교통카드 10만원권을 지급하고 있다.

또 면허증 반납일 또는 운전면허 취

소 결정일까지 계속 운전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보험가입증서 등)을 추가 제출하면 3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면허증 반납 절차는 관내 경찰서를 방문해 본인 희망 취소 진술서 작성,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약 30일 소요)를 수령 후 시 교통정책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산시도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재는 지급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현자/천안신문

icjn@hanmail.net

청년·지역민 공유 플랫폼 '달빛마켓'

의견개진 등 참여의 장

[청양] 청양 달빛마켓이 마을 공동체 문화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달빛마켓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행사로, 거듭될수록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부스 신청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부스와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

지난 달 청양구기자약초시장에서 열린 달빛마켓 행사에는 중학교 동아리 회원, 지역역량강화 사업팀인 청춘씨드, 지역민들의 수제 먹거리 부스가 마련됐으며, 청양푸드뱅크에서는 불우 이웃돕기를 위해 의류 혜택시장 부스를 배정받았다.

광장에서는 청년 기획단의 오픈마이

크가 펼쳐져 관심을 모았다. '괜찮은 일자리'를 주제로 한 거리 버스킹에는 청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청년 문제에 대해 공유했다. 이 자

리를 기획한 청문회담은 문화 다양성 사업으로 소수 문화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다음 달빛마켓은 9월 20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김홍영/청양신문

khy@cynews.co.kr



달빛마켓이 열린 시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자암선생 기념사업회 출범

조선전기 4대 서예가

다양한 선양사업 별이기로

[예산] 조선전기 4대 명필 자암(自菴) 김구 선생의 뜻을 기리고 알리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달 16일 예산 지역 학계와 문화예술계, 후손 등이 뜻을 모아 (사)자암기념사업회(회장 박성목)를 창립하고 자암의 문화예술을 선양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기념사업회는 창립취지문을 통해 "자암 김구 선생은 중종 14년(1519) 기묘년에 신진사립과 훈구대신들 사이 이념갈등으로 정면충돌해 일어난 기묘사화로 곤장을 맞고 유배생활의

시련을 겪다 남해섬에 안치됐다"며 "그는 일찍부터 주자학연구에 전념해 학문이 조광조·김식과 견줬으며 음률에도 뛰어나 약정에 임명된 적도 있다. 안평대군과 양사언, 한호 등과 함께 조선전기 4대 서예가로 손꼽힐 만큼 글씨에도 뛰어난 분"이라고 칭송했다.

이어 "학문사상과 정치여정에 나타난 위대한 현인 자암 선생의 높은 뜻이 윤리도덕 붕괴와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를 것을 갈망하며 기념사업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두리/무한정보
dure1@yesm.kr

충무공 김시민 특별전 열린다

천안홍타령관서 석 달간 전시

[천안] 천안이 낳은 임진왜란 진주대첩의 영웅, 충무공 김시민 장군

김시민 장군은 1554년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에서 태어나, 1592년 3800명의 병사로 옛새 동안의 격전 끝에 왜군 2만 명을 물리친 진주대첩의 영웅이다.

이번 특별전은 김시민 장군이 국왕으로부터 받은 선무공신교서와 장군의 묘에서 출토된 백자항아리, 영의 정과 충무공으로 추증받은 교지 등 전시한다.

/천안시 제공

청년참여 도시재생 공모

홍성군, 최대 1000만 원 지원

[홍성]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으라차차! 도시활력찾기' 도시재생프로젝트(이하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모를 진행한다.

도시재생프로젝트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도시지역의 주민 활동증진을 위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주민

및 청년이 참여해 지역에 활력을 주는 활동을 개소 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홍성군 도시재생대학을 이수한 주민은 우선지원 대상이 되며, 공동체 성이나 지역성이 취약한 경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된 경우 사업 내용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치중된 경우에는 공모에서 제외된다.

/홍성군 제공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급증

한 달 만에 600곳 '관심 부쩍'

[당진]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에 지역 업소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달 발매가 시작된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건수는 7월 26일 기준 600건을 넘어섰다.

시는 지난 4월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그동안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점가 일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당진사

랑상품권의 가맹점 범위를 시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소도 음식점업과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보건업, 숙박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사실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유통주점, 사행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졌다.

/당진시 제공

제65회 The 65th Baekje Cultural Festival

백제문화제

2019.9.28(토)-10.6(일)

개막식 공주 9. 28(토) / 폐막식 부여 10.6(일)

한류원조 백제를 즐기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주최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주관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Hanwha

www.baekje.org

의원시론

금산인삼의 미래 준비해야

날씨도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었고, 이럴 수록 나와 사랑하는 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필자는 금산에서 나고 자라 지금까지도 틈틈이 인삼 제품을 즐겨 먹는데, 덕분에 의정활동을 건강하게 하고 있으며 더운 날씨에도 인삼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뛰어난 효능을 자랑하고 세계적인 명성이 높은 금산인삼이지만, 농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재배지 고갈 및 경영비용 상승 등으로 인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걱정이 크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2011년 중국은 백두산 주변 15개 곳을 인삼 생산지로 지정하고 우리 돈으로 약 17조원의 시장 규모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도 넓히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현재 금산인삼이 처한 위기를 보고만 있을 수 없고, 향후 금산인삼의 위상을 더욱 높여 인삼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자는 지난 1월 인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인삼류 가공분야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



김복만 의원

정하였다.

그렇다면 조례를 만드는 것 만으로 인삼산업 육성이 성공 할까? 답은 그렇지 않다. 인삼 농가는 걱정 없이 재배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애용할 수 있도록 금산인삼과 관련된 종사자, 관계자 등 모두의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또한 세계 인삼시장의 성장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고, 복잡한 인삼 유통체계 개선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

그래서 얼마 전 출범한 '충청남도인삼산업발전위원회'에 큰 기대를 갖게 된다. 우리 지역 인삼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적인 명품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삼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자랑스러운 금산인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대한민국 건강식품으로써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다.

여름방학을 방학 답게

'방학'. 학생들에게 방학은 얼마나 기쁨과 흥분의 단어인가? 방학은 학생들에게 자신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잠시라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때다.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방학 생활을 위해 생각나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외경심을 갖도록 해줘야겠다는 점이다.

우리는 삶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알면 알수록 신비로움과 외경심에 절로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철학이나 예술,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등의 여러 가지 책이나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한 외경심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갈증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무한한 도전정신을 심어주는 근본적인 원천이 된다.

둘째는 이 세상에 신비하고 놀라운 일 가운데에서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이다.

방학이 오히려 더 지겨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영어, 수학, 피아노, 한자, 과외에서부터 고입, 대입대비 학원의 일정이 오히려 학교과정 때보다 더 빠듯한 기간일 수 있다.



김은나 의원

방학을 통해 축적해 볼 수 있는 학생들의 정서나 꿈과 끼를 찾아보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셋째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있다면 직접 찾아가보고 체험해 보라는 것이다. 학교 공부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경험하고 정규과정 외의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이다.

평소 갈 수 없었던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찾아보거나 음악회를 관람하는 문화체험 등은 얼마나 멋진 경험이다. 하물며 장애인 둑기, 불우이웃을 돋는 자원봉사활동 등이야 더 없이 값진 방학의 산 공부가 아니겠는가.

일생의 진로를 좌우할지도 모를 청소년시절의 한 여름방학의 일찬 프로그램 선택과 실천은 내 삶을 위해 방학을 어떻게 보냈는가와 고리가 걸린다. 내 삶을 위한 부지런한 방학을 보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계으른 사람의 하루는 일 년 보다 더 길고, 부지런한 사람의 하루는 한 시간보다 더 짧다'라고 했다.

도민 올리는 서해선 복선전철 변경 계획

일장춘몽이란 말을 쓸 수 있을까? 4년 만에 충남도민들의 믿음과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모두의 염원 속에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이면 주파한다면 서해선 철도가 당초 방침 대신 환승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10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현황과 향후 운행계획'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본 의원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손바닥 뒤집듯 당초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이로 인한 220만 도민들 또한 배신감과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 완공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서해선과 신안선을 직결하겠다는 방침 대신 두 노선 간 환승이라는 계획으로 바꾼 것이다.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변경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국가사업이든 민간사업이든 사업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안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해선 철도와 선로를 공유할 경우 터널과 역



이종화 의원

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가 늘어나고, 여객 수요가 분산될 우려가 있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해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건설되면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할 서해축이 구축돼 서해안 지역의 산업 발전 및 관광·물류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 해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모두에 충청남도의 이익은 빼져 있다. 충남도민과의 약속 또한 배제되었다. 도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퇴색된 이번 변경계획으로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충남도민의 몫이 될 것이다.

충청남도의 의견과 도민의 뜻을 묻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처사를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충남도민을 우롱한 이번 변경계획을 한 치의 변경도 없이 반드시 원안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차별화된 충남형 관광상품 개발해야



김옥수 의원

올해 충남도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도정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서해안중부권 가로림만의 해양교육·학습 및 힐링관광 기반 조성을 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관광발전 구상은 그동안 우리 도가 매력적인 관광명소로서 다소 미흡하다는 성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관광자원은 무궁무진하다. 역사적으로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특출한 역사문화유산과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580여명에 달하는 역사적 인물의 생가 복원과 함께 이를 활용한 교육·역사탐방사업 등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한다면 관광객 유치에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여름에 서해안 해수욕장으로 집중되는 계절적 쏠림현상을 사시사철 체류형 관광형태로 변모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 중심에 위치하여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인 지리

적 이점을 활용하여 자연공원, 관광명승지, 온천, 관광농원, 자연휴양림, 해양레저 스포츠 명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농·수·축·특산물과 연계된 지역별 축제와 연동하여 활성화

한다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충남으로 돌리고 두세 번 이상의 재방문도 가능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 도만의 특성 있는 관광자원인 5대 갯벌중 하나이자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 육성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웰빙·힐링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기농식품, 웰빙음식축제, 명상체험 프로그램, 건강한류 패키지 구성을 통한 충남형 관광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지역적 특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골몰하는 해당 시·군과 인근 지자체간 상호 협력적 관광연계코스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식어장 고수온 피해 최소화해야



이계양 의원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걱정과 호기심 가득한 마음을 안고 얼마 전 동료의원들과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을 찾은 바 있다. 현장에서 양식 어류의 상태와 수온을 확인하고 양식 어민들과 입식 어종, 양식 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도내 가두리양식장에는 전체 어류 3028만 2000마리가 사육 중이며 그중 천수만 가두리양식장에는 2300만마리로 80%정도 양식하고 있다. 천수만은 어류를 수천만 마리를 키우는 지역이다 보니 폭염으로 인해 바닷물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집단폐사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기에 매년 이맘 때쯤이면 이 지역 어민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고수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노력이 절실히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호응하며 철저한 사전 예방대책 추진과 현장 대처능력을 높여야 한다. 지난 5월 정부는 고수온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올해는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며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부응해 충남도 또한 팔을 걷어 부쳐야 한다. 양식어장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정 사육밀도 유지, 면역증강제 투여 및 질병예방으로 건강

도 증진, 사료공급량 절감 및 액화산소 공급 등으로 폐사량 감소 유도에 나서고, 천수만 내측 어류양식장을 외측 중층침설식 가두리로 이설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힘써야 한다. 특히 수산물 재해보험(고수온특약)의 올해 목표인 55% 달성을 넘어서기 위해 기업독려와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외에도 어장예찰 및 고수온 피해 예상 어류 조기출하와 긴급방류를 유도하는 한편, 차광막, 액화산소, 수중카메라 등 사전대응 긴급기자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수온어종 바리과 어류 등 양식 적합 품종의 시험·연구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양식시스템 구축으로 고수온 피해에 대한 대처는 물론, 양식 경쟁력 확보와 미래지향적 양식 기반 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우리의 대응



조승만 의원

충남도의회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이번 7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증진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안보문제까지 거론하며 대한민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2019년 일본 무역보복에서 사용된 백색국가 제외란 뜻은 백색국가끼리 무역절차를 간편하게 해 주어 수출, 수입을 자유롭게 우대하던 것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 체제GATT협약에 기초한 WTO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과 국제무역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일본의 터무니 없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국산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수출비중이 59.2%를 차지하는 충청남도는 정부의 국산화 정책에 벌맞

추어 관련기업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일로 정부도 이성적으로 잘 대응하겠지만, 우리 국민 개개인이 냉정하게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일본과 감정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 달만이라도 일본을 아무도 가지 않고, 한국에서 일본제품을 아무도 사지 않고, 일본차가 단 한대도 팔리지 않는다면 일본도 크게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현명한 대처로 양국 관계 정상화를 기하고 국민의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 기업에서는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소재 부품에서도 대일 무역 적자에서도 진정한 독립선언을 할 수 있고, 가까운 나라 일본과 좋은 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가 극일을 할 것이라고 본다.

학생 인권 보장되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한다

행동하는 충남도의회

학교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영수 도의원)

제11대 충남도의회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발굴을 위해 전방위적 연구모임을 풀가동하고 있다. 도민과 함께 보폭과 눈높이를 맞춰가며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넘치는 곳은 깎아내어 균형있는 사회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도민 생활과 밀접된 정책발굴로 도민의 기와 흥을 북돋우며, 충남호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정책나침반이 될 충남도의회 12개의 연구모임을 대표와의 일문일답으로 소개한다.

연구모임 구성 계기는?

="학교안에서의 인권침해 요소들을 알아보고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을 연구하여 학교 현실에 맞는 인권정책을 발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충남 학생들



학교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이 제2차 세미나를 갖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인권침해에 대한 자료 조사 등 실태파악, 사례연구,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와 정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운영 성과는?

="학교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

구모임은 지난 3월 발족한 이후 다양한 학교 인권문화를 주제로 3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와 세미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변화와 과제', '인권친화적 학교, 어떻게 만들까?'을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내 학생의 인권 침해 상

황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 및 조사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학생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 인권 실태를 정확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11월까지 정기적으로 연구모임을 개최, 바람직한 학교 인권문화 조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

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세미나 및 토론회를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권보장을 위한 타시도 모범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충남의 학교현실에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도정과 어떻게 연계할 구상인가?

="학교의 인권문화를 조성하는 교육 주체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연구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바람직한 인권문화 조성을 주도할 주체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향후 연구결과를 교육정책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포부 한 마디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충남의 인권여랑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지역민의 삶을 위한 도의회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업계고 인재 육성 방안 마련해야”

오인철 의원, 의정토론회 개최



오인철 의원(천안6)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오 의원이 죄장을 맡았으며, 강희태 충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오인철 의원

수석연구관이 '충남 직업계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혁세 도 일자리팀장과 이무상 충남인력개발원 능력개발 처장, 선우영구(주)대산이노텍 전무, 김용정 도

교육청 장학관, 기호업 강경상업고등학교 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오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인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지역사회와 지역기업이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로 끌어올리는 등 고졸 취업자의 사회적 자립·성공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는 지역사회가 함께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농민수당 조례에 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방한일 의원, 연구모임 토론회



방 의원은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지방소멸위험 지수가 0.67로 위험지역에 해당하여 15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현장 농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농민수당 조례 제정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 의원은 "오늘날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는 바로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지방 소멸을 막고, 농민의

삶이 농촌에서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책임연구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례 제정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본소득의 원칙을 반영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도의회 의원 6명과 농협 이사 등 총 1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효율화 모색

김연 의원, 토론회 참여



김 의원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문적인 도립시각장애인복지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매년 인건비 등 사무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존립 그 자체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문적인 도립시각장애인복지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매년 인건비 등 사무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존립 그 자체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 살리기 현안 ‘골몰’



김명선 의원

이 찾아가고 빌로 뛰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애절한 마음이 전달”되었을 때 기업이 온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1일 보건환경연구원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4월 환경부 TMS 발표에서 “현대제철이 전국에서 오염 배출량 수치가 제일 높다”며 “실질적으로 오염배출량이 현대제철소 전체 0.05%밖에 안된다고 반박한다”며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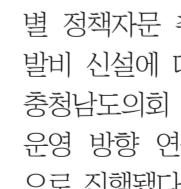
양금봉 의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충남밀의 브랜드와 정책개발 사업으로 농가소득향상에 대한 도정질문, 18일에는 신서천 화력 발전소 공사현장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방문하여 철탑의 철거 및 고압선로의 지중화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적극 견의했다.

예·결산 분석 중장기 운영 방안 논의

도의회, 정책위원회 개최



별 정책자문 추진상황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예산운용 방향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향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숙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예산정책조직 확대 ▲충청남도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분석 기법 제시 등을 주문했다.

도민 행복 증진·지역발전 앞장 ‘공로’ 빛났다

도의원 7명, 우수의정대상 수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충남도의회 김형도, 이선영, 정병기, 김득용, 이계양, 오인철, 방한일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제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등에 헌신한 광역 의원을 발굴하여 주는 상이다.

김형도 의원(논산2)은 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육군사관학교 충남이전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과 논산에 국방국가산단의 지정과 조성 등 충남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이선영 의원(비례)은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5·18 망언 규탄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의당 소속 의원으로서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고 실천해 왔



제7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한 7명의 충남도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 또 노동인권, 생태환경, 학생인권, 아동복지 및 인권 등의 가치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병기 의원(천안3)은 장애인 복지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현장방문과

해요 교류 등 현장에서 답을 찾고, 눈 높이에 맞는 정책발굴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김득용 의원(천안1)은 농업경제환경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농민과 소상공인

의 대변자로써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등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계양 의원(비례)은 도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시책 지원, 지역건설근로자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한 남다른 의정활동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안전충남 건설에 앞장섰다.

오인철 의원(천안6)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 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충남 교육청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많은 부분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방한일 의원(예산1)은 농업인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 연구모임’ 운영과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충남 농업인 복지 증진에 앞장섰다.

수상 의원들은 “도민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 되어 더욱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도정을 견제하고,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충남소방헬기 추가 도입 건의

안전소외, 이해찬 당대표 면담
충청권 항공대응력 강화 필요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서산1)과 위원들이 지난달 23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면담의 시간을 갖고 충남소방헬기 1대 추가 도입을 위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달 12일과 13일 충남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후 추진된 일정으로 충남 소방헬기 추가 도입의

이상 보유하여 출동공백 없이 운용중이라고 덧붙였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충남 소방 헬기는 3년 평균 연간 69일의 검사 및 정비로 8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며 작년의 경우 94일간 정비로 인해 운항하지 못했다”면서 출동공백의 보완을 위해 추가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전은 현재 임차소방헬기를 운용중이고 세종은 보유 소방헬기가 없는 실정이다며 충청권의 항공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헬기 추가 도입 비용은 국비 50%, 도비 50%로 중형급 소방헬기 250억원 중 125억원의 국비가 필요하며, 도입 추진에 3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태안으로

홍재표 의원, “영토수호 앞장서야”



격렬비열도 역시 해양경찰이 수호하여 영토주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태안 유치는 6만 3000 태안 군민의 소망이 희망”이라며, “태안군은 환황해권의 중심지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최서단 영토인 격렬비열도가 있는 만큼 태안이 최적의 입지로, 중부지방해경청 유치를 위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결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의 미래가 태동하는 곳!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은 더 큰 충남의 시작입니다.

의정목표

·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의정방향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 신뢰로 보답하는 「책임의정」

